



## ◆ [Focus]

- (공급망) 미국 희토류 공급망 현황과 대중 의존 완화 대책

## ◆ [What's News]

- (반도체) 상무부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안의 영향 가시화
- (에너지) 바이든 대통령, OPEF+ 석유 감산 결정에 사우디 향한 강한 비판
- (경제통상)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근원물가지수(Core CPI) 상승세
- (공급망) 미국 철도노조 노사합의안 부결에 파업 위기 고조

## FOCUS

### 1. [공급망] 미국 희토류 공급망 현황과 대중 의존 완화 대책

#### 가. 배경

#### □ 중국 언론, 대미 희토류 수출 규제 가능성 시사

-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 타임스(Global Times)는 10.9자 기사에서 미국 국방 부문에서 높은 중국 희토류 의존도에 주목하며,
  - 미국이 최근 가동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에 맞대응, 중국도 희토류 수출 규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

#### □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동향에 미국 정부의 경각심 고조

- 9월 미국 국방부는 F-35 전투기 엔진에 사용된 희토류(코발트-사마리움 합금)가 미국산 조달 규정을 위반했다며 인수 중단
  - 하지만, 국방부는 부득이하게 미국산 조달 규정 면제를 허용해 F-35 전투기 인수 재개(10.8). 향후 미국산으로 대체 요구
- 국방 분야 외에도 통신, 전기차, 태양광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인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미국 정책 가속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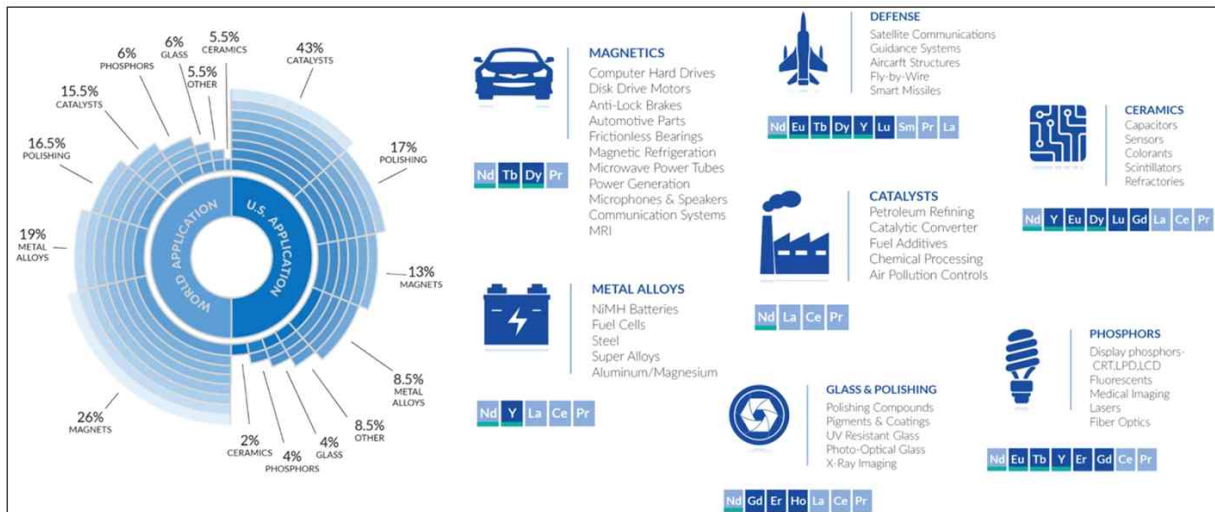
- 중국이 국제 희토류 산업에서 독점적 지위를 악용할 경우, 미국의 핵심 산업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정·재계 우려 심화

## 나. 미국 희토류 공급망 현황

### □ (수요) 국방, 전자, 친환경 등 산업 전반에서 희토류 수요 급증세

-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용되는 원소 주기율표상 17개 화학 원소를 통칭
  - 란타넘(La)부터 루테튬(Lu)까지의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에 더해 스칸듐(Sc)과 이트륨(Y)을 포괄
- 희토류는 국내외 광범위한 산업과 제품군에서 필수 요소로 사용
  - △촉매제(원유정제, 자동차), △영구자석(휴대전화, 풍력터빈, 전기차 모터), △광섬유(증폭기, 레이저), △광·디스플레이(형광등, 휴대전화 스크린,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

< 희토류 국제 수요 및 미국 내 소비 현황 >



자료 :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 □ (매장량) 미국 내 희토류 매장량은 180만 매트릭 톤 추산(전 세계 1.5%)

- 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2021년)에 따르면,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은 약 1억 2,000만 매트릭 톤에 달하며,
  - 이중 중국 내 매장량이 4,400만 매트릭 톤으로 세계 1위(약 37%), 다음으로 베트남(18.3%), 러시아(17.5%), 브라질(17.5%) 등 순

□ (생산) 중국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약 60% 담당(2021년)

- 2021년 기준 미국 내 생산은 약 4만 3,000 메트릭 톤으로 전 세계 연간 생산량 28만 메트릭 톤 중 약 15% 차지
- 2010~2014년 동안 중국발 희토류 공급 쇼크의 영향으로 미국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생산 재개, 꾸준히 증산 중

< 주요국 희토류 생산 및 매장량 현황 >

국가	생산량				매장량 (2021년 기준)
	2018	2019	2020	2021	
미국	18,000	28,000	39,000	43,000	1,800,000
호주	21,000	20,000	21,000	22,000	4,000,000
브라질	1,100	710	600	500	21,000,000
미얀마	19,000	25,000	31,000	26,000	NA
중국	120,000	132,000	140,000	168,000	44,000,000
러시아	2,700	2,700	2,700	2,700	21,000,000
태국	1,000	1,900	3,600	8,000	NA
베트남	1,000	1,300	700	400	22,000,000
전 세계	190,000	220,000	240,000	280,000	120,000,000

자료 : 미국지질조사국(USGS)

□ (수입) 미국 내에서 일부 희토류 정광(concentrate)이 생산되나, 국내 소비되는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은 거의 100% 수입에 의존

- 2021년 미국의 희토류 금속 및 화합물 수입 총액은 1억 6,000만 달러로 전년 1억 9백만 달러에서 급증
-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에스토니아 6%, 말레이시아 5%, 일본, 4%, 기타 국가 7% 등 순

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동향

□ 중국 당국, 희토류 산업에 대한 장악력 확대 강화

- 2021년 말 중국 정부는 중국 3대 희토류 생산 기업의 합병 승인
- 신설된 국영기업 China Rare Earth Group은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기업으로 중국 내 희토류 생산 쿼터의 70%를 담당하게 됨.

- 국제 희토류 산업 지배력 강화와 가격 통제 목적으로 평가
  - 해당 합병을 통해 강화된 중국의 희토류 산업 장악력에 대해 미국 등을 위시한 국제 사회의 경각심 고조

□ 중국, 지정학 전략으로써 희토류 수출통제 활용 가능성 고조

- 중국 산업정보기술부는 희토류 관리 잠정 지침 발표(2021.1.15.)
  - △희토류 산업 관리 규칙, △외국인 투자 규제, △수출 통제, △국가 전략 비축 관리 체계, △정보 추적 시스템 등 규제 장치 마련

라. 미국의 희토류 자급 대책

□ 연방 부처(국방부, 에너지) 주도로 희귀광물 국내 생산 역량 강화 추진

- 국방부는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의 희귀광물 채굴 및 처리 시설 개발을 위해 MP Minerals에 3천 5백만 달러 투자
- '50년 국방생산법에 근거해 전략적 광물의 국내 채굴·가공·재활용 관련 투자 지원 결정
  - 국방부 주관으로 친환경 에너지, 배터리 제조 등에 이용되는 핵심 광물 등 국내 공급망 실사 및 투자 집행
- 에너지부는 희토류 및 전략 광물의 생산시설 확충 및 기술 투자를 위해 마련된 1.4억 달러 예산 집행을 위해 계획 수립 중

□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를 통해 국제 공급망 안정 도모

- 국무부는 우리나라 포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 10개국과 유럽 집행위가 참여하는 MSP 설립 발표(6.14)
  - 참여국들은 MPS를 통해 전 공급망 내 정부·민간 투자 협력을 증진, 높은 수준의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준수에 합의
- 미국 정부는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해외 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금융 및 투자 지원 등 방안 마련 중
  - △미국 수출입은행을 통한 해외 사업 금융지원, △국방생산법 개정 추진으로 해외 프로젝트 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해외 기회 발굴

□ 연방 의회, 대중 희토류 의존 종식을 위한 법안 검토 중

- 상원에는 중국산 희토류 사용 감축, 국내 생산 증대, 공급망 혼란 최소화를 위해 '필수 에너지·희토류 안보 및 온쇼어링 법안'\* 계류
  - \* Restoring Essential Energy and Security Holdings Onshore for Rare Earths (REEShore) Act
- 동 법안은 △희토류 전략 비축 제도화, △원산지 공개 의무화, △국방 분야에서 중국산 희토류 사용 금지,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조사 등을 골자로 함.

\* 자료 : 미국의회조사처(CRS), 미국지질조사국(USGS), 글로벌타임즈(10.9), 브루킹스연구소(8.1) 등

**What's News**

□ [반도체] 상무부 반도체 대중 수출통제안의 영향 가시화

- 美 기업 KLA는 중국 대표 반도체 제조 기업인 YMTC(양쯔메모리)에 설치 중 또는 완료된 자사 장비에 대한 지원 중단 공문을 발송
  - 또한, KLA와 Lam Research는 YMTC에 반도체 장비 기술 지원을 위해 파견된 미국 직원들을 철수 중
  - 현지 언론은 수출통제안 중 '반도체 생산 과정 내 미국인의 지원'과 관련된 제재의 상세 조건을 파악하며 취한 선제 조치로 고려
- 우리 기업에 대한 단기적 영향은 적을 전망
  - 美 상무부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중국 생산시설에 필요한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을 1년간 포괄적으로 허가
  - 심사 과정 및 생산 일정 지연 등 우리 기업의 단기적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중국 반도체 업체의 경쟁력과 미국 반도체 업체의 단기 매출은 타격을 받을 전망

\* 자료 :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로이터(10.12)

## □ [에너지] 바이든 대통령, OPEC+ 석유 감산 결정에 사우디 향한 강한 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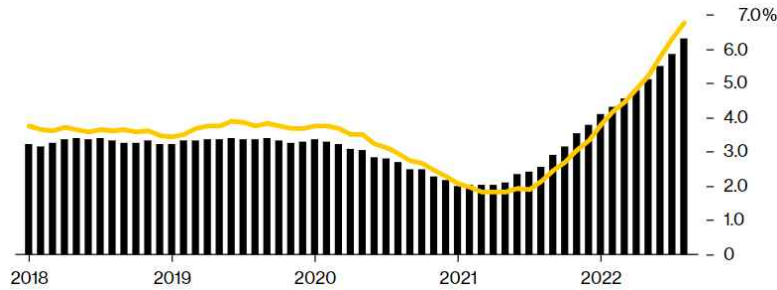
- 최근 OPEC+의 감산 결정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심화하고 러시아의 전쟁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우디 정부에 강한 비판 목소리
  - 바이든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사우디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대가(consequences)가 있을 것”이라며 국가 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평가 및 조정할 것이라고 밝힘.
  -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의 산유국 협의체 OPEC+는 이번 11월부터 일일 원유 생산량을 200만 배럴 감산 발표했으며, 미국 내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정부의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
  - 뉴욕타임스(NYT) 따르면 기존 석유 생산수출 카르텔반대법인 노펙(NOPEC) 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무기 판매 중단, 이란 공습 대비 회의 불참, 사우디·UAE 미군 철수 등 안보 협력 축소와 같은 여러 조치가 고려 중

\* 자료 : 뉴욕타임스(10.12)

## □ [경제통상]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근원물가지수(Core CPI) 상승세

- 노동부 9월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 발표(10.12일)에 언론은 10.13일 발표될 9월 소비자 근원물가지수(Core CPI) 인상 예상
  - WSJ은 노동부의 발표를 인용, 식품 가격과 난방비의 인상으로 생산자가 기업에 부과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9월 생산자물가지수(Producer Price Index · PPI)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보도
  - PPI의 상승으로 기업은 인상된 가격의 완성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분석
  - 이어 블룸버그는 PPI의 상승과 임차료의 상승으로 13일 발표될 소비자 근원물가지수(Core CPI)도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

<2018 ~ 2022 임차료 상승세>



(주 :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임차료는 꾸준한 상승을 기록, CPI 상승세와 비슷)

[자료 : 노동통계국]

- 이로 인해 중간선거 전에 있을 연준의 11월 정례회의(FOMC)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예상

\* 자료 :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10.12)

□ [철도노조] 미국 철도노조 노사합의안 부결에 파업 위기 고조

- 바이든 행정부의 노사 중재안에 대해 12개 철도노조가 개별 표결을 진행하던 중 최초 부결이 발생

\* 총 12개 노조 표결 중 현재 4개 비준, 1개 부결, 7개 진행 중

- 노조 중 세 번째로 규모가 큰 **BMWED** 철도노조는 “중재안이 현장 고충 해결과 복지 마련에 미흡”하다고 주장(표결: 찬성 43%, 반대 57%)

\* BMWED : Brotherhood of Maintenance of Way Employees Division of the Teamsters

- 11.19일까지는 현상 유지 기간으로 파업이 불가하나, 동 표결이 다른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긴장감 고조

\* 가장 규모가 큰 2개 노조는 중간 선거 이후인 11월 17일 이후 표결 전망

- 파업 시 하루 경제적 손실은 약 20억 달러로 추산되며, 중간 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개입 여부에 현지 관심이 집중됨.

\* 자료 : 엑시오스(10.10)

## Notice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10.13(목)	美 9월 소비자물가지수 (Customer Price Index)
10.13(목)	美 9월 소비자 근원물가지수(Core CPI)
10.14(금)	美 9월 소매판매율(Retail Sales)
10.14(금)	美 9월 수입물가지수(Import Price Index)

###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행사안내) 2022 국제기구 주요기업 등 청년 취업설명회(11월 3일, 워싱턴DC)
- (자료발간)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반응(US22-35)  
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Fed Now) 출시 전망 및 시사점(US22-34)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US22-33)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US22-기획4) \* 10월 말 공개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US22-기획3)
- (인터뷰) 미국 상공회의소 찰스 프리먼 아시아 선임부회장 인터뷰(10월 13일)  
반도체산업협회(SIA) John Neuffer인터뷰 KOTRA YouTube 업로드



→ 인터뷰 바로 보기(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